

댕냥이는 피맥 즐기고, 집사는 할인 받고... '개, 이득'!

〈강아지+고양이〉

〈펫을 키우는 주인〉

펫코노미 시대

4 유통가 '펫 멤버십' 〈끝〉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족(Pet + Family)'이 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수는 1500만 명,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은 23.7%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약 3조원으로, 2027년까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펫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가 하면, 반려동물 전문 제품들을 선보이며 동물 특화 기능을 탑재해 차별화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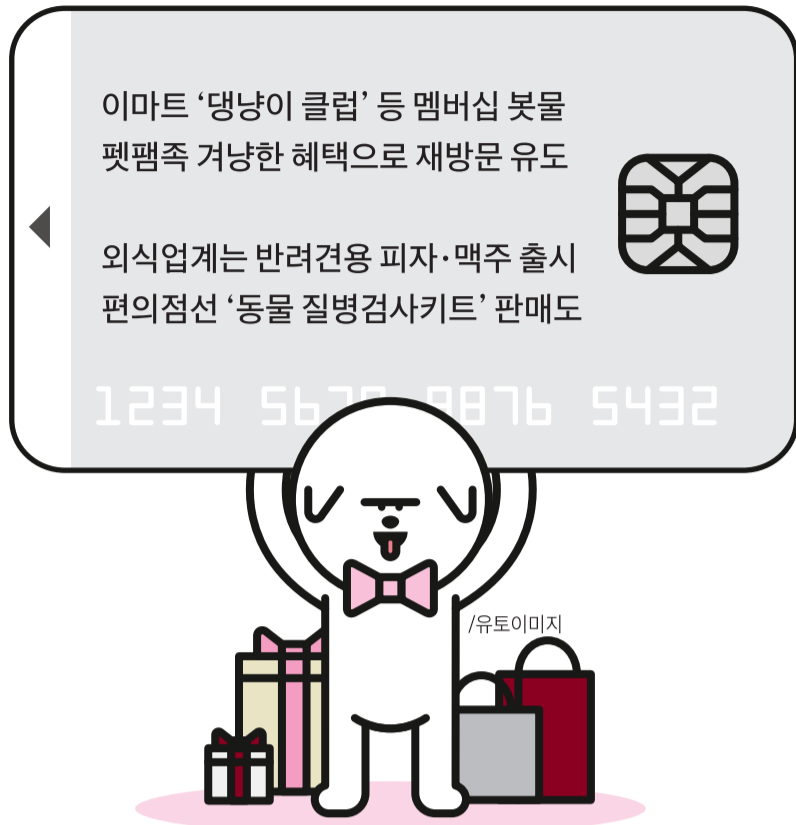
◆펫팸족 멤버십 통해 혜택 강화

이마트의 몰리스펫샵과 홈플러스는 각각 '댕냥이클럽', '마이펫 클럽'을 론칭했다. 반려동물 관련 상품 구매에 아낌없이 지출하는 고객이 많아짐에 따라 멤버십을 통해 고객 혜택을 강화하고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먼저, '댕냥이클럽'은 전국 33개 몰리스펫샵에서 반려용품(식품 포함)을 구매할 시 스탬프를 적립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주는 새로운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첫 가입시 5%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이후 추가로 3/7/10번째 스탬프를 적립할 때마다 각각 10/10/20% 몰리스펫샵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릴레이 스탬프' 행사를 진행한다.

'댕냥이클럽'은 이마트 모바일 앱에서 가입할 수 있고, 스탬프는 1일 1개 적립이 가능하다. 결제 시 이마트앱 내 모



바일 포인트카드를 스캔하면 스탬프가 자동 적립된다.

홈플러스의 '마이펫 클럽' 가입 또한 간편하다. 홈플러스의 멤버십 '마이홈플러스' 앱에서 설정하기만 하면 된다. 홈플러스는 클럽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다양한 펫 상품에 대한 단독 할인 혜택뿐 아니라 유익한 애완동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추후 다양한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펫 피자·맥주 등장!

외식업체들은 반려견을 위한 전용 메뉴를 선보이며 펫 푸드 카테고리를 확장했다.

대표적으로 '미스터펫자'가 있다. 미스터피자의 인기 메뉴를 모티브로 개발

한 업계 최초 반려견용 피자도 미스터피자의 인기 메뉴와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어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피자를 즐기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동물에게 유익한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았다. 소화기 어려운 밀가루 대신 쌀가루로 도우를 만들었고 유당불내능력이 없는 동물도 먹을 수 있는 락토프리 무염 치즈를 사용해 피자의 오리지널리티를 살렸다. 여기에 소고기, 고구마, 닭가슴살 등 개들이 좋아하는 식재료를 더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맥주 회사 호가든은 반려동물 전용 간식물 '트릿데이블'과 협업해 '펫버어'를 출시했다. 펫버어는 오렌지껍질

이 재료로 사용되는 호가든에 영감을 받아 제품에 오렌지향 첨가물을 비롯해 고구마·옥수수·보리 등을 첨가해 맛과 향을 냈다. 비타민 A, B2, C, D3, E 등 총 8종의 비타민이 함유된 일명 비타민 음료로 식수 대신 음용 할 수도 있다.

◆편의점에서 반려동물 건강검진도!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편의점과 H&B 스토어는 관련 카테고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GS25는 SBS 'TV 동물농장'과 함께 반려동물 용품 PB '유어스 TV동물농장'을 론칭했다. 반려견, 반려묘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전용 매대를 갖춘 점포도 4000개까지 확대했다.

또한 편의점 최초로 반려동물 질병체의 검사키트 '어헤드'를 독점 판매하고 있다. 어헤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인증을 마친 동물용 의료기기로서 반려동물의 소변을 통해 간단하게 10가지 이상의 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체외 검사키트로 내용물은 시약막대, 색상표, 흡수지로 구성됐다.

1분 내로 핏펫앱이 자동으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 반려 동물의 당뇨병, 방광염, 신부전 등 10가지 이상의 질병과 관련된 이상 징후를 확인 할 수 있다.

GS25는 단순 사료, 간식 위주의 구색을 뛰어넘어 보조제와 검사키트를 선보이며 반려동물 건강 증진 플랫폼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U 역시 지난해 반려동물 PB 브랜드 '하울고'를 론칭하고 전용 상품을 대거 출시했다.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이하 세나개)', '고양이를 부탁해(이하 고부해)'와 손 잡고 전용 먹거리를 출시하기도 했다.

H&B스토어 올리브영, 락라블라, 룩스 일부 매장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이 늘면서 유통 채널 역시 관련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있다"며 "전문 서비스와 전용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를 공략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몰리스펫샵에서 고객이 반려동물 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마트

'트레이닝슈트' 다이나핏 매출 1000억 최대 실적

하이퍼포먼스 스포츠브랜드 다이나핏이 론칭 3년 차만에 연 매출 1000억원을 가뿐하게 넘어섰다.

다이나핏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만에 연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공식 회계연도 마감에 올해 2월까지인 만큼 이번이 공개된 성적표에 벌써부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이나핏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다수의 베스트셀러 제품을 확보한 것이 주요했다. 운동복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슈트의 품격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트레이닝 슈트가 론칭 직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다이나핏만의 제품 라인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이어 소비자의 눈높이를 만족시키는 뛰어난 품질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제품군이 고르게 선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다이나핏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포츠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선도하는 차별화된 제품과 마케팅 캠페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직장인 신년 꿈 1위는 건강 보다 '자기 계발'

휴넷 직장인 987명 대상 설문 1위 자격증 취득...2위 외국어 습득 자기 계발 교육비 월 평균 12.6만원

직장인들은 올해 '건강관리'보다 '자기계발'에 더 중점을 둘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넷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직장인 9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0년 이루고 싶은 소망 1위와 2위에 '자격증 취득'과 '외국어 습득'이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휴넷은 매년 초에 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해 '건강 관리'가 1위에 뽑혔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자격증, 외국어 등 자기계발이 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생직장에 대한 불안감에 '업글인간(성공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자기계발형 사람)'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격증 취득'(20.7%), '외국어 습득'(20.0%), '이직·창업'(17.1%), '다이어트·금연 등 건강관리'(17.1%), '저축 등 채테크 성공'(13.6%), '연봉 인상 및 승진'

(6.4%) 순이었다. 이외에 '학교 진학'(1.4%), '내 집 마련'(1.4%), '결혼·출산'(0.7%)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94.4%가 올해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4.1% 늘어난 수치다.

학습 목적(복수응답)은 '업무역량 강화'가 74.6%로 6년 연속 1위에 올랐다. '교양 증진 및 힐링'은 43.7%로 2위에 올랐다. 이외에 '이직'(24.6%), '창업'(20.4%), '승진'(7.0%) 등이 차지했다.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비 지출 계획은 54.9%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작년보다 지출을 늘리겠다'는 응답자도 38.0%에 달했다. 반면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견은 7.0%에 그쳤다.

한 달에 지출하는 교육비 금액은 평균 12만6000원으로 집계됐는데, 전년 11만9000원 보다 7000원 증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5만~10만 원 미만'이 41.6%로 가장 많았으며, '10만~20만원 미만'(23.2%), '5만원 미만'(16.9%), '30만원 이상'(11.3%), '20만~30만원 미만'(7.0%) 순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bada@

"올해는 꼭!"... SSG닷컴, 운동용품 기획전

12일까지 '작심삼일 타파' 행사 홈트족 겨냥 120종 상품 할인혜택

연초 계획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꾸준한 운동'과 '다이어트'다. 특히 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소위 '덤벨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SSG닷컴은 오는 12일까지 '신년 맞이 작심삼일 타파 운동용품 기획전'을 진행한다

SSG닷컴은 꾸준히 늘고 있는 '홈트족(홈트레이닝족)'을 겨냥해 러닝머신과 스쿼트 머신 등 헬스용품부터 요가 매트, 짐볼, 각종 다이어트 보조제에 이르기까지 총 120종의 상품을 최대 27% 할인해 선보인다.

헬스 카테고리 대표 상품으로는 '바디엑스 M10 클럽형 러닝머신'을 정상가 209만원에서 31만원 할인한 178만원 단독 특가로 판매한다. 클럽형 러닝머신은 실제 헬스장 기구와 비슷한 성능을 갖췄으며 집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소음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올인원 손리 스쿼트 머신' 리퍼브 상품은 8만 2000원 단독가에 판매한다. 정상가는 12만원대지만 단순 반쯤 상품

재포장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하체 근육 강화에 좋은 '스쿼트' 운동 자세를 정확히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달 새롭게 선보이는 '손리 카이로 마사지건'은 10% 할인된 21만 5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이상품은 총 모양을 한 마사지 기구로 운동 전후 사용하면 근육 통증 완화를 돕는다.

이제는 SSG닷컴 스포츠타임 바이어는 "지난해는 접이식 러닝머신, 접이식 실내자전거 등 주로 보관이 편리하고 가성비 좋은 상품이 인기였다면 올해는 집에서 헬스장 못지 않은 전문적 운동을 도와주는 상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헬스 초보를 일컫는 '헬린이(헬스+어린이)'를 위한 기초체력 향상 기구도 준비했다. 팔굽혀펴기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데카트론 트레이닝 푸시업 바'를 5900원에, 복근 운동을 돕는 '크로스 트레이닝 복근용 AB휠'을 1만 1000원에 판매한다. 균형감각 향상을 위한 '밸런스 보드'도 2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꾸준히 인기가 좋은 다이어트용품도 모았다. 요가 매트, 짐볼, 폼롤러, 마사지볼 등 소품을 최저 1만원대부터 만나볼 수 있다. 저칼로리 1주일 식단 도시락 상품과 대용량 단백질 보충제도 4만원대부터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